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질문집 발간을 위한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지역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 교사의 활동경력에 맞는 연구 역량 개발
- 나.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개별 경험을 공론화 하는 과정
- 다. 미디어교육 교사의 자기 성장 지점 발견
- 라. 미디어교육 교사의 정체성 확립
- 마.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질문집 발간을 위한 학습 및 연구 과정을 통해 교사의 활동 경력에 맞는 성장 기회 제공 및 연구개발 능력 강화

2. 연구 주제

가. 미디어교육에 관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만드는 과정

- 1) 미디어교육 교사로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정리
- 2) 다양한 경력의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생각들을 듣고 모아내는 과정
- 3)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진 근거 있는 고민과 질문에 대한 공유
- 4) 질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디어교육 교사의 성장지점 발견
- 5)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

나. 인터뷰 진행

- 1) 일정 : 2017년 12월 7일 ~ 12월 12일
- 2) 인터뷰 대상

김귀정	미디어교육 교사
김윤희	미디어교육 교사
임재은	미디어교육 교사
홍다인	미디어교육 교사
김수진	미디어교육 교사
이우순	미디어교육 교사
여한아	미디어교육 기획자

- 3) 인터뷰 내용

- ① 질문집의 내용으로 정리된 핵심 질문들을 묻고 답하기
- ②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미디어교육에 관한 고민들

4) 인터뷰 결과

- ① 미디어교육의 경력과 경험은 다르지만, 고민의 의미와 지점은 닮아 있음
- ② 미디어교육의 큰 방향에 대한 공부와 공유의 장 필요
- ③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이 자기 성장의 과정이 되는 것을 확인
- ④ 무엇이 문제였고 해결점은 무엇인지 각자마다 느끼는 생각들을 잘 모아낸다면 좋은 교육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판단
- ⑤ 미디어교육 경력의 차이에서 오는 고민의 지점이 다름
- ⑥ 보조교사로서 주교사가 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것들의 이해

3. 연구 결과 및 과제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질문을 듣고 모아내는 과정을 통해 질문집이 완성되었다. 질문집에는 교사들의 현장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고민에 대한 질문들이 담겨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 보다는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고민들을 들여다 보고 생각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교사워크숍, 소모임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미디어교육 교사 모두의 고민으로 공론화 시켜내길 기대한다. 또한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바란다.

우리들에게
너, 미디어교육
나, 교사들이
던지는
질문집

.....

.....

.....

.....

나의 고민들
너의 고민들
함께 나누기
신기한 경험

이것은 어디에 쓰여야 할까?

질문 집을 다 정리하고 질문 집의 사용설명서를 쓰다가 그만 막혔다.

내가 쓴 글은 이 질문 집의 사용설명서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 집을 만든 과정을 적어서 다른 교사들도 동료들과 이렇게 한 번 해보라는 제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 질문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리의 연구결과인 질문 집의 의미, 쓰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우리의 이 과정은 아주 재밌고 값진 것이었는데, 자...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이 과정이 왜 소중한고 신기한 경험이었는지 떠올려보자.

마을활동가들의 고민을 질문으로 엮은 마을에 던지는 질문 집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시민교육위원회 제작)을 보게 되었다. 질문 집이라는 이름답게 130개의 질문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 두 개의 질문만을 읽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들었다. 질문에서 질문의 배경도 보이고, 그간의 누군가의 노력도 보이고, 웃음도 보이고, 대립도 보이며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는 듯 했다.

미디어 교육 교사들도 고민과 생각이 많으니 묶어서 질문 집으로 모아볼까?

미디어가 뭐지?/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이고,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 미디어도 모르겠고, 교육도 모르겠고, 미디어 교육은 더 모르겠고.../ 나는 이일이 재미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맨날 하는 것도 힘든데 관둘까?/ 맨날 관둘까 말까를 고민하는 내가 교육 할 자격이 있나?/ 등등..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8년이 지나도 고민은 같고 활동경력과 상관없이 고민이 같다.

흩어져서 맴돌며 반복되는 미디어 교육 교사들의 고민들을 모아내는 것만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우선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4명의 교사들 고민을 질문으로 정리해서 나누어 보았다.

다들 공감하는 질문, 같은 주제인거 같기도 하고 다른 주제인 것 같기도 한 질문, 완전히 다른 시선의 질문, 중요한 문제인데 놓치고 지냈던 본질적인 질문, 등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갔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고민이 정리되거나, 또 다른 고민으로 발전하거나, 수업이나 교육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였다.

우리는 다른 교사들의 질문도 궁금해져서 각자 한두 명의 동료교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것도 질문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질문의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정리하고 모아내고 나눠보려고 한 시간들이다.

교사 각자에게 미리 인터뷰공지를 하고 질문과 생각들을 준비하게 하였다. 여러 모임과 인터뷰는 대화나 수다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활력을 주는 자리였다. 맥락 있고 이유 있는 질문과 생각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만나니 나의 뇌와 마음이 열리며 빈 공간에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이 들어와 다른 형태의 것으로 변해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했거나,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또 형식적이고 부정적으로 자리했던 '평가'라는 단어가 이제 나의 성장지점과 보충점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질문 집 뒤에 교사들이 나만의 점검표를 작성해 보았고 질문 집을 보는 사람들도 작성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다. 그 동안의 평가는 객관적 관점에서 교사와 수업을 평가했다면 나만의 점검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나만의 항목을 만들어 나와 수업을 점검하는 것이다. 질문들을 모으며 교사 각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느꼈다. 그런데 다름을 볼 새도 없었고 그 다름을 좋은 것으로 생각할 새도 없었다. 이제 다름을 계속 유지하며 칭찬하고 혹시 수업이나 교육에서 받은 상처를 나 스스로 점검해보고 꺼내 보이면 좋겠다.

그 동안 우리는 똑같은 고민만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개인**과 **교사들의 성장지점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한 발 내딛은 의미 있는 시간들 이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교사들의 질문 집이다. 이 질문 집을 통해 질문을 보고 질문의 묘한 기운을 느끼고 직접 활동기반에서 질문 집을 완성해보시길 바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주는 신기한 경험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2월

익산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교육 교사 박선미

질문집 사용설명서

1단계

□ 질문 집에 실려 있는 질문들을 보고 질문의 힘을 느껴본다.

-> 질문들을 꼭 다 읽어 볼 필요는 없다.

2단계

□ 미디어교육교사 3인 이상이 모였다면 가능하다.

-> 경험상 적정인원은 3~5인 정도가 적당하긴 합니다만...

□ 미리 자신이 참여한 교육 중에 가장 아쉬웠던 교육과 가장 행복했던 교육을 정리해서 준비한다.

-> 자기정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니 시간이 없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생략해서는 안된다.

-> 교사들 중, 어떤 교육을 꼽는 것을 힘들어하며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정하면 된다.

□ 그 교육들을 꼽은 이유와 함께 질문을 준비한다.

-> 질문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잘 정리하는 것이 좋다. 교육, 교사, 관계, 구조 등등 활동을 통해 들었던 모든 질문들이 가능하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준비사항을 가지고 모였다면 각자 준비한 교육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질문을 나눈다.

-> 자연스럽게 서로의 질문 중에서 유사하거나 교차되는 고민들이나 생각들을 나눈다.

-> 질문들 중에 답이 나오는 질문들을 찾아보고 답을 찾기 위해 동료교사들이나 미디어센터와의 소통 안에서 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나눈다.

□ 마무리로 돌아가면서 소감이나 후기를 나눠보시기를 적극 추천한다.

☑추신

처음 질문 집을 사용할 경우, 속는 셈 치고 생략하는 과정 없이 차례대로 진행해 보세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1.

한 교육 끝나고, 한 교육 끝내고, 한 교육 마치면서 미디어 교사로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교육을 끝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더 채워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잘 할 수 있으니까 다음 교육에서는 이렇게 해 볼까’ 같은 평가와 정리의 시간을 겪으면서 성찰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신이 진행한 다양한 교육 경험만이 날 성장하게 하는 것일까? 나를 미디어교사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2.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특히 영상제작교육에는 상영회를 진행해야 되니까, 교사는 결과물의 완성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참여자 또는 상황에 따라 교사가 직접적으로 결과물 제작에 참여하는 일도 생긴다. 교육 과정에서 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교사의 개입은 어디까지 인정 될 수 있을까?

3.

더 좋은 교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참여자들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참여자들에게 가성비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 고민 하게 된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된다. 미디어 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나’라는 사람까지로 범위가 넓어질 때, 전문성의 이야기는 얼마만큼 확장 될 수 있을까?

4.

“다큐멘터리제작교육 때 한 참여자가 혼밥족,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제작하고 싶어 했다. 혼자 군산에 촬영하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거기 사는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 참여자는 계속 혼자, 혼자, 혼자, 혼자서 정말 잘 산다 이런 내용으로 혼자에 대한 얘길 하고 싶어 했는데, 결과물로 완성된 영상에는 ‘아! 나 진짜 혼자 살 수 없구나. 우리일 때 나는 행복 하구나’ 그런 얘기를 담아냈다.

영상은 테라피적인 게 있다고 믿는다. 내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카메라 앞에서 솔직해지는 나를 발견했었다. 카메라 앞에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도 평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꺼낸다는 걸 느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길 바라는 것 같다. 그 참여자도 그런 느낌이 담긴 결과물이어서 좋았던 것 같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 교사의 미디어 활용 경험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까?

5.

교육에서 교사는 참여자들을 독려하며, 참여자들의 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과정에서 참여자들 스스로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6.

어떤 교육 환경(분위기, 조건, 태도 등)을 만들어야 참여자들이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할까?

7.

참여자가 활동을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가?

8.

수업의 진행방식을 참여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9.

나는 교사로서 참여자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는가?

10.

참여자의 생각을 교사의 정형화 된 틀에 맞추려고 하거나 교사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11.

어떤 소통이 좋은 소통인가?

12.

교사의 성장은 무엇일까?

13.

참여자별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저마다 다른데, 나는 교사로서 참여자들의 특성을 얼마나 배려하며 그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14.

참여자들의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사로서 나는 참여자들에게 생각을 표현하라 강요한 적은 없나? 침묵과 표현 사이에서 상황을 가늠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15.

참여자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16.

미디어교육 교사로서 이 일에 대하여 재미를 느끼고 있는가?

17.

미디어교육을 왜 하려고 하는가?

18.

왜 센터는 교사가 없다고 할까?

왜 교사는 교육이 없다고 할까?

19.

미디어 교사는 몇 살 까지 할 수 있을까요?

20.

교육평가 회의, 연구회의, 소모임 관련해서 다양한 회의가 열린다. 회의를 마치면 정말 잘 되었다하는 것도 있고,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는 회의도 있다. 그런데 시간낭비인 회의가 있을까? 이곳은 회의문화 (회의시간 지키기, 회의 시간 결정과정에서부터 기록을 남기고 해결방안을 세우는 것까지 민주적이고 체계적)가 잘 자리 잡혀 있는가. 나는 회의안에서 경험의 많고 적음, 나이와 성별의 차이, 관계의 차이에 상관없이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 의견이 자유롭게 존중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1.

평가회의 도중에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 할 때가 있다.

자격지심일까? 평가와 비난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나? 내가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가?

22.

나를 비롯하여 나의 가족 나의 친구는 미디어를 제대로 읽고, 즐기고, 비판하고, 활용하며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을까?

23.

나는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나?

24.

미디어교사양성과정을 마치고 들은 깜짝 놀란 말.

“여러분은 소속이 없습니다.”

“엄마, 직업난에 뭐라고 써야해? 가정주부로 써야지?”(아이)

“응? 글썸~그냥 미디어강사라고 써”(나)

“엄마 직업이 왜 미디어강사야? 가정주부이지?”(남편)

“왜? 얼마 벌지는 않지만 보람 있게 일하고 있는데?”(나)

“물론 당신이 재미있고 보람 있게 일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흔히 직업이라고 하면 기관에 소속되어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을까?”(남편)

“그럼..... 난 뭐하는 거지?”(나)

“글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뭐지?”(남편)

25.

25_1.

나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가?

25_2.

미디어 교사는 나의 직업이 될 수 있을까?

25_3.

미디어 교사로서 어떻게 성장하며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비전을 세우고 있나?

26.

교육 활동을 하면서 참여자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이 늘 있었다. 참여자와 관계 맺기를 할 때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27.

2,3년 한 기관과 지속했던 소외계층 교육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관계 맺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

28.

나는 교사로서 참여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

어르신영상제작 과정에서 ‘노인’을 소재로 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2012년 개봉, 추창민 감독)”를 함께 보았다. 인기 만화가 ‘강풀’씨의 웹툰 만화를 영화화한 것으로 이순재,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씨의 열연이 돋보인 영화였다. 출연배우 모두 연기파배우인데다 노인들의 죽음과 사랑, 가난으로 인한 자식들과의 소외문제 등등이 가슴 절절히 이어져서 교실은 내내 엄숙한 분위기였다. 영화에 비친 노인의 삶을 들여다보자는 시도였었는데 참여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심지어는 굉장한 불쾌감을 내보이신 참여자도 계셨다. 요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왜 이곳에 와서까지 봐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29.

29_1.

흔히 말하는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다문화)의 교육 평가는 어느 지점에서 이뤄져야 할까?

29_2.

수업 중에 참여자의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30.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던 나의 행동과 말들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 힘들다. 지나치다. 어디까지 참아야지? 결국 밖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섭게 말을 하게 된다. 나의 의도와 자꾸만 멀어져가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31.

교사인 나의 말과 행동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봐 조심스럽다고 하자 옆에 앉아 있던 동료 교사가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학생들은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내가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편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맘돈다. 내가 편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내가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뭘까? 내가 교사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교육에 임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동안 나는 미디어교육에 참여주체로서 임했을까? 과연 나는 참여자들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교육을 해야 하는 대상자로만 바라본 것이 아닐까?

32.

참여자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33.

참여자에 대한 이해도 많이 없었고 참여자의 출석률도 들쭉날쭉 했다.

그런데 왜 나는 즐거웠을까?

수업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34.

교육을 하면 할수록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가끔 내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더라면 참여자에게 영향을 주어 어떤 식으로든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어느 것이 맞을까?

35.

내가 주교사할 때는 보조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만 부탁드린다. 그리고 내가 보조교사 할 때는 주교사의 역할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 주교사 보조교사 사이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조교사에 대한 그 배려가 수업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쉽게 말해 참여자 아닌 보조교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수업에 도움을 주는 교사, 보조교사.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나의 행동들은 뭐가 있었을까?

36.

학교 교육에서 보조교사는 시끄럽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참여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거나, 어깨를 잡아 가볍게 주의를 주거나, 혹은 강하게 눈빛 교환을 하며 수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교사의 행동이 오히려 수업에 방해로 주는 것은 아닌지 항상 고민하며 몇 번을 망설이다가 위와 같이 행동한다. 그마저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참여자들을 보조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37.

참여자를 대하는 첫 마음이 공평하게 출발하고 있는가?

38.

나는 수업에서 참여자와 소통하기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교사들에게 예의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수업에 오셨던 한 분이 계셨다. 교육 후속 모임에도 들어가셔서 활발한 활동을 하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즈음 그 분을 센터에서 우연히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서 먼저 인사를 드렸더니

”아이고 우리 예쁜이, 잘 있었어?”라는 이상한 반말 인사가 돌아왔다.

39.

39_1.

이런 상황은 참아야 할까? 화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39_2.

교사와 참여자들의 연령 차이가 크게 날 경우 관계 조정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39_3.

교사는 참여자들로부터 존중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40.

교사가 앞에 있든 없든 그 존재를 무시하는 수업시간 내내 소란스러웠던 참여자들과 수업을 마치며 드는 생각이 있다.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 시켰어야 했다는 것과 참여자들과도 필요에 따라서는 대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확고잡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강압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은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41

학교 수업 중에 참여자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학교 담당선생님이 들어오셨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나가셨다. 그때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때 학교 담당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우리 수업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말하며 수업에서는 참여자들과 내가 주체라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42.

참여자와의 첫 만남, 그리고 기획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성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참여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성이야기)를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도와줄 자신이 없어

서 그리고 내용이 너무 버거워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척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물론 이야기의 구성에 도움을 주긴 하였지만 아주 객관적인 방법 제시에 그쳤으며, 이렇게 하면 참여자들이 힘들어서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도록 교사로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가?

43.

44.

참여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나 꿈을 물으면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생각하거나, 직접 선택해 뭔가를 만들어가거나, 노력을 투여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본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걸로 한 번 주제를 정해서 해보면 어때, 대본을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 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뭔가 제공해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교육을 하다보면 이런 생각들을 잊게 된다. 자꾸 참여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다.

45.

나의 수업에서 ‘마을의 다양한 공간을 사진으로 표현하여 마을지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목표가 내 안에는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목표를 수업안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교사가 마을 지도에 대한 명확한 상들이 그려 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획자와 함께 설정한 목표를 수업에 잘 녹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46.

수업에 대한 목표들이 교사 안에 잘 그려지고 있는가?

47.

보통의 미디어교사는 기획자의 제안이나 기관의 제안에 따라 수업을 의뢰받아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미디어교사들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고, 주로 만나는 교육 참여자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

문에 모든 종류의 수업에 능통하지는 않다. 수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는 좀 더 수월하고, 내가 잘 다루는 매체를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 특정 참여자그룹과 성향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수업들도 있다. 나는 교사로서 수업을 의뢰 받았을 때, 제안 받은 그 수업의 목표에 항상 동의하였나?

48.

수업의 목표들이 참여자들을 위한 목표인가?

49.

내 스스로 그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이 되는가?

50.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난 뒤 이 내용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호응이 없는 경우이다.

교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참여자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51.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경우, 수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걸까?

52.

초기에 설정한 수업의 목표가 참여자들과 맞지 않거나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방향과 내 수업이 다르게 흘러 갈 때 나의 수업의 목표를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을까?

53.

수업의 목표들을 참여자들을 위해 포기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54.

교사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욕심으로 참여자들의 상황이나 이해 정도를 가늠하지 못하고 참여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55.

수업의 방향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56.

참여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잘 된 수업일까?

57.

참여자들이 이 재미있는 미디어교육을 몰라보고 다 같은 그렇고 그런 교육, 그냥 외부강사 들어와서 하는 놀아도 되는 만만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만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여자들에게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수업 아니면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수업 일 뿐인데 말이다.

58.

단기교육은 짧은 시간에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과 관계 맺기가 되기도 전에 참여자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게 된다.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자신없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미안해진다.

단기교육에서는 시간적으로 참여자와의 안정적인 관계 맺기가 어려워 보인다.

단기교육은 체험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59.

사진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참여자들과 사진으로 자꾸 뭘 해도 안 되면 사진만 고집할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미디어교육이 소통이라면 두 학기 중에 한 학기는 관계 맺기에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빠꿨어도 되지 않았을까?

60.

유아교육은 재밌게 노는 것이라는 생각이 유아교육을 하면 할수록 든다.

녹음기 녹음버튼만 눌러도 재밌고, 슬레이트 한번만 쳐보는 것도 재밌고, 마이크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고, 책보고 이야기 나눠도 재밌어하고 신기해하는 참여자들인데...

유아교육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로 고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매년 그렇게 교사로서 평가를 하지만 왜 수정이 안 되는 것일까? 왜 계속 유아교육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

61.

1인 미디어, 영상제작, 라디오제작 이런 교육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런게 미디어교육에서 중요한가? 급변하고 팽창하는 이런 미디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각을 기르는 교육, 그리고 젠더교육,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62.

교육평가와는 별개로 참여자들이 결과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결과물을 가지고 참여자들과 수업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63.

활동이 많은 교육이 좋은 교육이고 활동이 적은 교육이 나쁜 교육인가?

64.

재미있는 수업은 좋은 수업인가?

흔히들 학교미디어 교육은 꼭 필요하지만 매우 힘들다고 말한다. 학교 관계자의 미디어교육 인식 부재, 학교 현장교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참여자들의 미디어 강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교사 보수의 낮은 책정 등등이 그 이유이다.

65.

65_1.

학교미디어 교육의 교육 환경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

65_2.

학교미디어 교육 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간혹 감성팔이가 될 만한 소재를 들고 오는 참여자들을 만난다. 그 소재 안에는 본인과 가족은 없고 주변의 이웃들일 경우가 있다. 드라마틱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웃의 삶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이 몹시 불편하다.

하지만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교육을 마칠 때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으므로 별다른 행동이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66.

66_1.

나는 편견 없이 참여자와 만날 수 있을까?

66_2.

나는 교육 안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서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 신문 교육이었는데 참여자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온 수업이었어요. 2차시쯤 되었을 때 6학년 여자아이 두 명이 수업 안에서 짜증 부리고 대답도 안하고…….무척 힘들었죠. 수업을 계속 듣고 싶은지 물어보고 전혀 의지가 없기에 교육을 관두게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 친구들도 끝까지 있었으면 본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교육을 받는 친구들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 아이들을 끝까지 데리고 갔어야 했나?” 라고 반문하곤 해요. 정말 씁쓸한 경험이었어요.”

67.

67_1.

참여자들이 수업의 의지가 없을 경우 교사는 어떻게 할까?

67_2.

참여자들이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것일까?

“수업을 받았던 참여자들이 교육이 끝나도 라디오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마을미디어 교육의 경우 지속성을 중요한 지점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런 공동체가 생기면 기꺼이 동참도 하고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한 것이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일 경우에는 조금 머뭇거리게 되요. 나는 좋은 의도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혹시나 그 지역 센터나 혹은 기획자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이죠.”

68.

68_1.

교육 후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센터와 교사가 관리를 해야 할까?

68_2.

교육 후 공동체가 만들어져 센터와 교사가 관리를 해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 기준일까?

68_3.

마을미디어 사업(라디오, 신문 등)에서 사업비가 없어지면 어떤 상황이 될까?

어쩔 수 없이 교사가 편집을 맡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작업 내내 “아이들 작품인데 내가 건드려도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막상 평가서를 열어보니 한쪽에 큼지막하게 들어선 말. “편. 집. 을. 안. 해. 서. 너. 무. 좋. 았. 다”

69.

69_1.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 결과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자의 몫인가?

69_2.

참여자 생각하는 교육 결과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자의 몫인가?

70.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성과가 더 좋아지나?

71.

모든 활동에서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72.

나의 수업 안에는 이유가 있는가?

73.

나는 수업 안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74.

나는 수업 안에서 무엇에 자신 있는가?

75.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참여자들도 같이 따라올까?

76.

나는 내 수업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77.

나는 내 수업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

78.

나는 참여자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79.

내가 수업을 통해서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

80.

무관심한 참여자로 인하여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81.

어떤 교육 환경이 교사를 수업에 몰입하게 만들까?

82.

미디어 교사로서 무엇이 행복한가?

83.

교사가 수업에 완전 몰입했을 때,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84.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여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된다. 교사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교사가 보기에 독특한 행동을 하는 참여자들도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참여자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받아들이고자 애쓴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교육현장에서 그러한 노력이

결코 쉽지는 않다. 나는 교사로서 참여자를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을까?

85.

참여자가 교사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경우, 혹은 특정 잣대를 들이대며 평가하거나 교사의 가치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경우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86.

교사로서 나의 자질이 늘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수업을 통하여 참여자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자신감을 얻게 될 듯 하다. 내가 진행한 수업 혹은 나와외의 관계 맺기를 통해 변화된 지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87.

교육결과물에 대한 압박 때문에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88.

미디어교육을 경험할수록 미디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통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자신은 소통이라는 말을 좋아하면서도 교사로서 참여자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없다. 나는 참여자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교사일까?

보조강사에서 주강사로서 하는 첫 수업에서 잘하고자 하는 압박감이 컸다.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능력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컸던 것 같다. 마음껏 실패해도 된다면 나는 어떤 시도를 해 볼 수 있을까?

89.

“쓸모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쓸모없는 것의 반복에서 오는 결과”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어떤 일에 대해 능통하여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 제한된 교육 과정에서 참여자가 수업과 관계없는 행동을 한다면, 나는 교사로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자를 이해하고 그 행동을 인정할 수 있을까? 다른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90.

교육에는 전혀 관심 없는 참여자들을 보며 뭐하고 싶은지 물어 본다, 그러면 피자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다. 정말 가끔 내가 참여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참여자들은 어떤 기분일까?

91.

요즘은 나만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싶다. 자꾸 내가 하는 미디어 교육은 수박 겉핥기 같고, 유행을 따라가려하고, 흥내내기 같고, 속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나만의 미디어교육 철학이 없기 때문일까?

92.

미디어교육교사 양성과정을 마치며 수료식 때 다양한 참여자들을 만나면서 참여자들이 말하는 삶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었다.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만남도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고 매체와 교육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하고, 양쪽에 모두 신경쓰려니 힘들고 잘 안되고, 그래서 사실 미디어교육이 지금은 재밌다기보다는 많이 부담스럽다. 그만 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

93.

미디어교육을 하다보면 이것 저것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교사 각자 좋아하거나, 본인 역량에 맞는 분야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다 하려고 하니 너무 자신감이 떨어진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교사활동을 해야 할까?

94.

나 자신이 미디어 활동에 몰입해 본 적 있는가?

95.

교육을 하며 힘들어하는 참여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얼마나 하기 싫을까? 저 친구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조용히 하라고 집중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안 들을텐데...

얼마나 졸릴까? 이 시간에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오만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참여자들에게 미안해진다.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96.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라는 말을 교육에서 많이 한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생활, 삶에서 미디어로 소통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착잡하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수업의 의미는 무엇일까?

97.

미디어교육 대부분은 보조교사와 모둠을 나누어 수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 전에 그날의 수업내용과 활동에 대한 회의를 하였음에도 보조교사가 활동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나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98.

모둠으로 진행할 때 하고 싶은 역할과 하기 싫은 역할이 있기 마련이다. 역할 정하기를 할 때 매우 예민해진다. 교사가 보았을 때 잘하는 역할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은 것일까? 모둠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 좋을까?

모둠원들간의 다툼이나 의견조율 등 교사의 역할과 관여가 어느 정도여야 할까?

나만의 점검표_박선미

- 이번 교육을 하며 나는 행복했는가?
- 이번 교육에서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가?
- 이번 교육에서 내가 나를 위로해 주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
- 이번 교육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은 이번 교육에서 어떻게 되었나?

나만의 점검표_박화정

- 나는 참여자들에게 수업에 올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 내 수업에는 여백이 있는가?
- 내 수업은 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 나와 참여자가 변화된 점은 있는가?
- 나와 참여자는 즐겁고 유익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가?

나만의 점검표_강은석

- 수업에 대한 목표들이 교사 안에 잘 그려지고 있는가?
- 나는 교사로서 참여자를 선입견 없이 대하고 있는가?
- 참여자가 활동을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가?
- 참여자의 모든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있는가?
- 미디어 교사로서 수업을 즐기고 있는가?

나만의 점검표 _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면 한 번 써보세요!*

편집후기

높에 빠지다.

질문사례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처한 상황이었다. 미디어교사로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서 출발한 질문들은 그것들을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날 질문의 높에 빠뜨렸다. 이 질문이 내 고민인지, 내 고민이 질문에 잘 담겼는지, 질문을 위한 질문들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의 높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높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진 못했지만, 질문사례집은 완성이 되었다. 무형의 생각을 형태를 가진 문장으로 풀어내는 이번 연구 활동이 2017년을 기억하는 추억 중 하나가 됐다.

-윤강로-

그간 나는 교육이 잘 되었고 안 되었고를 스스로 평가할 때 참여자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연구과정을 거치고 나니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나의 행복이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깊은 연관을 갖고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내가 어디를 보고 교육을 했느냐를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질문 집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나와 동료교사들의 고민과 질문들이 입체적으로 보이며 나의 문제점과 성과점이 보였다. 그 동안 혼란스럽게 내 머리에 엉켜있던 반복되는 질문들이 정리되어 한 걸음 앞으로 크게 내딛는 기분이다.

-박선미-

다른 사람이 내놓은 답을 찾기 보다는 새로운 질문을 찾으려고 했어요. 질문을 찾으려다보니 행적을 쫓아야 했고 쫓다보니 동료 교사와 만나야 했고 그 관계 속에 숨어있던 나와 다시 만나야 했지요. 교육장 안에서의 소동과 엇갈림, 통로가 없어서 덮어두었던 쓸쓸한 감정들,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나의 행동들, 이제는 그 불완전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과정임을 알려주셨던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박화정-

“나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다면 아직 인생을 대면할 용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이번 질문집을 만들면서 미디어교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완성한 것 같다. 그리고 보조교사에서 주교사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밀려온 두려움과 압박감들을 대면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어서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강은석-

인터뷰에 응해주신 미디어 교육 교사분들과
재미(익산)미디어 교육팀에게 감사드립니다.